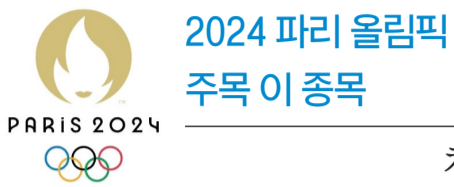


36년만에 올림픽행 여자 단체 '깜짝 메달' 도전



2024 파리 올림픽
주목 이종목

체조

‘도쿄 동메달’ 여서정 등 5명
남자 3명 개인 자격으로 출전
남녀 도마·남자 마루 메달 기대

한국 남녀 기계체조는 180도 바뀐 분위기로 2024 파리 올림픽을 맞이한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2020 도쿄 올림픽까지 12개 나라가 겨루는 단체전에 8회 연속 출전한 남자 대표팀이 이번에는 본선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

남자 대표팀을 대신해 변방에 있던 여자 대표팀이 36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티켓을 손에 넣어 파리로 향한다.

여자 대표팀은 여서정(제천시청), 이은서(경북도청), 신솔이(강원도체육회), 이다영(한국체대), 엄도현(제주삼다수)으로 이뤄졌다. 12등으로 올림픽 막차를 탄 만큼 본선에서는 순위를 끌어올리는 게 1차 목표다.

남자 대표 선수 3명은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준호(천안시청)가 개인종합 스페셜리스트로 가장 먼저 파리행을 확정했고, 류성현(한국체대)이 올해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시리즈 마루운동 랭킹 포인트 1위를 차지해 올림픽 티켓을 받았다.

대한체조협회는 FIG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할당된 티켓 1장 몫의 주인공으로 김한솔(서울시청)을 지명했다.

3년 전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 도마 신재환의 깜짝 금메달과 여자 도마 여서정의 동메달로 메

달 2개를 수확한 한국 체조는 이번에는 남자 마루운동, 남자 도마, 여자 도마에서 메달 3개를 바라본다.

도쿄 올림픽 마루운동 4위에 오른 류성현과 아시아안게임 마루운동을 2회 연속 제패한 김한솔은 마루운동의 메달 후보다.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6개 종목을 모두 뛰는 개인종합의 이준호가 8명이 겨루는 도마 결선에 진출하면 메달도 가능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한다.

올림픽 무대를 2회 연속 밟는 여서정은 주 종목 도마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과를 노린다.

마루운동과 도마의 성패는 공중회전 동작 후 매트에 내리는 동작을 일컫는 착지에 달한다.

남자 마루운동은 12m의 탄성도 높은 마루에서 70초 동안 선수가 체조의 기본 기술을 얼마나 민첩하고 부드럽게 펼치고 정확하게 표현하느냐를 가리는 종목이다. 공중회전, 물구나무 정지 동작도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

여흥철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는 “마루운동 연기에서 공중회전 후 착지하는 장면이 5분 나온다”며 “착지할 때 한쪽 발이 어긋나기만 해도 0.3점이 깎인다. 착지를 5번 해야 하니 1.5점이 왔다갔다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착지한 발이 미세하게 움직여도 점수를 깎는다”면서 “착지에서만 1점 내외로 승패가 갈린



체조 국가대표 류성현(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4 파리하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결국 마루운동 결승 당일 선수의 컨디션과 착지 실력에 따라 메달 색깔이 결정된다”고 내다봤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도마 은메달리스트 출신으로 한국 여자 체조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딸 여서정과 함께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진기록을 남긴 여 전무이사는 “여객, 관절 등 여러 부상으로 서정이가 고전하다가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라며 “부상만 없다면 메달권은 이번에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여서정은 이미 체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의 반열에 오른 시몬 바일스(미국)와 도마에서 메달을 다룬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멘탈 붕괴를 극복한 바일스는 파리 올림픽에서 단체전, 개인종합과 주 종목인 마루운동, 도마를 합쳐 4개 금메달 이상에 도전한다.

체조는 기계체조(14개), 리듬체조(2개), 트램플린(2개)으로 나뉘며 모두 18개의 금메달이 걸렸

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계 체조 선수만 파리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기계체조는 단체전 예선 성적에 따라 종목별 결선 진출자가 결정된다.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더라도 다른 나라 선수들과 한 조를 이뤄 치르는 단체전 예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종목별 결선에 진출할 수 있다.

기계체조는 올림픽 개막 다음날인 27일 시작해 8월 5일 끝난다. /연합뉴스

여서정, 자신의 기술로 도마 메달 노린다

광주 출신 여흥철의 딸, 두 번째 올림픽 메달 도전

도마에서 한국 여자 기계체조의 역사를 쓰고 있는 여서정(22·제천시청)이 파리올림픽에서 두 번째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광주 출신의 체조 은메달리스트 여흥철(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의 딸이기도 한 여서정은 도쿄에서 도마 종목 동메달을 따내며 1996년 애틀랜타에서 메달을 획득한 아빠와 함께 부녀 메달리스트가 됐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최초 여자 기계체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며 화려하게 등장한 여서정은 2021년 도쿄에서 한국 최초 여자 기계체조 올림픽 메달을 거머쥐면서 여자 체조계의 새 역사를 썼다.

당시 여서정의 경기를 현장에서 중계한 여흥철 전무이사는 딸의 동메달이 확정된 순간 진심을 다해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를 회상한 여흥철 전무이사는 “내가 메달 딴 것보다 더

좋았다”고 말했다.

메달을 획득한 여서정은 ‘아빠 목에 메달 걸어 드리기. 아빠 메달 옆에 내 메달’이라며 자신의 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아빠의 사진을 개인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여서정은 2022년 도하 아시안선수권 대회와 지난해 열린 싱가포르 아시안선수권 대회에서 도마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며 기량을 뽐냈다.

지난해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 도마 2연패를 향한 도전 대신, 같은 기간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벨기에로 간 여서정은 “2023 세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에서 도마 종목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최초 여자 기계체조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로도 이름을 올렸다.

세계적인 체조 선수인 브라질의 레베카 안드라데와 미국의 시몬 바일스와 함께 나란히 시상대에 오른 여서정은 그의 두 번째 올림픽 메달에 대

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여서정에게는 부상으로 인한 힘은 시기도 있었다.

도쿄 올림픽이 끝난 뒤 여서정은 어깨, 관절 등 부상으로 한동안 운동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회복 기간을 거쳐 현재는 거의 나아진 상태.

여흥철 전무이사는 “이미 기술적인 부분은 완성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고, 컨디션 조절 잘하라고 이야기만 해주고 있다. 부모로서는 기특한 마음이다. 사실 서정이의 선수 생활에는 내가 영향을 미친 점은 전혀 없었다. 서정이가 손해 보면 손해 봤지 우여곡절도 많았다”며 “서정이에게는 ‘늘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는 없다. 선수 생활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올림픽에 나서는 여서정은 자신의 기술로 이번 대회 정상까지도 노리고 있다.

여서정은 자신의 이름을 딴 ‘여서정’ 기술(234년)을 2019년 등재했다. ‘여서정’ 기술은 뒀



도마 종목 도쿄 메달리스트 여서정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두 번째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를 짚고 두 바퀴 몸을 비틀며 720도를 회전하는 등재한 ‘여2’ 기술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한류 홍보의 장’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25일 개관

선수단 홍보·메달리스트 기자회견
K팝 등 콘텐츠 소개·체험 공간 제공
공식 홈페이지 통해 무료 예매 가능



대한체육회가 오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 시내 메종 드 라 시미에서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오는 25일부터 프랑스 파리 제 33회 파리하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를 개관한다.

‘Play the K’를 컨셉으로 한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는 오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 시내 메종 드 라 시미에서 운영된다.

지난 코로나19로 1년 미뤄 2021년 진행된 2020 도쿄올림픽 당시 운영이 중단됐던 코리아하우스는 8년 만에 문을 연다.

코리아하우스는 팀코리아 선수단 홍보와 응원이 주 목적인만큼 단체 응원전과 팀코리아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며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코리아하우스 입장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예매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K팝·한식·뷰티·관광·실감 콘텐츠 등 한국만의 콘텐츠를 세계 방문객에게 소개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 체험 공간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한국 음식과 음료, 전통 굿즈를 판매하고 전통 공연, 발레 공연 등 비상설 프로그램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한다.

대한체육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통 창구도 마련한다.

코리아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K-팝 비보잉, 댄스 공연, 댄스 클래스, K-BOOK 콘서트 등 일차별 체험/관람프로그램과 올림픽 소식, 행사를 공지한다.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역대 가장 많은 후원사 및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낸 이번 코리아하

우스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외교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한 누구나 한국의 대표 문화를 체험하고 각인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 코리아하우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 파리하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장애인육상 꿈 담아 후회없이 던질 것”

광주 장애인육상 첫 태극마크 정지송, 패럴림픽 포환던지기 출전

광주장애인육상연맹 정지송(삼호개발)이 광주 장애인육상 최초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정지송은 오는 8월 28일 개막하는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에 F41(왜소장애) 포환던지기 종목에 출전한다.

이번 올림픽 투표한 경기는 9월 2일 오후 12시 10분(현지시간)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치러진다.

2017년 풍암고 재학 당시 지적농구로 장애인 체육을 접한 정지송은 2년 뒤 장애인 육상으로 전환해 2020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인선수로 발탁됐다.

정지송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2022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4위, 2023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또 2024 파리 그랑프리 장애인 육상대회에서 11.07m로 개인 신기록을 세우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지송은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매년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이상준 감독과 박영식 코치에 감사하다”며 “첫 패럴림픽 도전 목표를 ‘5위’로 삼았지만 개인 신기록이 아시아권 메달권 기록과 3~40cm 차이가 나는 만큼 나와 장애인육상의 꿈을



담은 4kg 포환을 후회 없이 던지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상준 시장장애인체육회 육상 감독은 “한국에는 정지송의 장애 등급(왜소장애·F41)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며 “정지송의 기록이 육상 강국 선수들을 당당 압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육상을 내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지송은 오는 8월 13일까지 이전 선수촌에서 파리 패럴림픽 대비 특별 훈련을 진행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